

숲에서 살던 환경보살, 마지막 길도 숲에서 숲으로

김재일 대표가 걸어온 길

김재일 대표는 사단법인 보리이사장, 사찰생태연구소 대표, 숲 해설가 협회 공동대표, 조계종 환경위원회 명예위원, 불교 TV 자문위원으로 언론·환경·문화 분야에 걸친 시민운동에 한 획을 그은 큰 역할을 하였다.

〈언론분야〉 1990년 3월 '보리방송모니터회'를 창립해 방송의 역기능 폐해를 감시하고 MBC 불법 선교방송을 13년 만에 중단시키는 등 불교의 교권 확립을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1993년 '보리방송문화상'을 제정해 불교계 유일한 종합 언론상인 '불교언론문화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전문문화분야〉 1991년 시민단체인 '두레문화기행'을 창립해 현재 전국에서 가장 역사가 긴 문화유산답사 단체를 만들었다. 현재까지 20년 동안 600여 차례의 답사를 통해 우리문화유산을 알리는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향락위주의 여행문화를 배우고 느끼는 건전한 여행문화로 바뀌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경주문

화엑스포 개관 기념 불교문화사진전을 열어 세계인들에게 불교의 문화유산을 자랑 하기도 했다.

〈환경분야〉

1. 두레생태기행 창립 - 1994년 생태, 체험, 전통 중심의 환경단체 '두레생태기행'을 창립하여 우리나라 환경운동과 환경교육의 접합을 시도하는 새로운 방향의 생태탐방 교육을 처음 시도하였다. 인간 중심의 환경교육을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교육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어왔다. '전국생태기행 지도자 100인 워크샵'을 주도적으로 개최해 올바른 생태기행과 탐방을 위한 '생태기행 및 탐방지침'을 마련했다.

2. 사찰생태연구소 창립 - 2002년 3월 '사찰생태연구소'를 설립해 '전국 108사찰 생태조사'를 10년 원력으로 시작해 지난 2008년 마무리했다. 또한 불교의 생명자비사상을 외국학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불교계 환경교육과 환경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근대에는 불교수목원 설립을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께 제안해 불교수목원 설립을 위한 환경위원회 내 소위원회가 구성됐으



노덕현 기자

며 '불교경전 속의 식물' 간행을 위해 '불교경전 속의 식물목록 조사' 사업을 시작했다.

〈교육분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서울특별시 위탁사업으로 서울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했으며, 2003년 2007년 '사찰생태해설가' '사찰생태문화지도자' '사찰생태문화안내자'를 양성해 배출했다.

내가 꿈꾸는 불교수목원

김재일 대표가 분지(823호·2월 17일자)에 기고한 마지막 칼럼으로 불교수목원 건립의 필요성과 생태환경에 대한 고인의 애정이 잘 드러나 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지구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제사회에 숲에 대한 관심이 확산됐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 산림관리 차원을 넘어 휴양 및 치유의 숲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불교도 수목원 설립에 뜻을 모을 때이다.

왜 불교수목원인가

시원적으로 불교는 불법승(佛法僧) 삼보가 숲과 함께 해온 숲의 종교다. 불교의 정체성과 포교강화를 위해서도 불교수목원은 있어야 한다. 아침고요수목원 등 종교성격을 지닌 수목원이 이미 10년 전에 국내에 선을 보인 바 있다. 현재 사찰림 관리와 사찰 조경식생에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는 바, 수목원을 조성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다. 또, 불교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을 할 것이다. 시대의 흐름으로 보아 불교수목원은 지

금 시작해도 늦은감이 없지 않다.

불교수목원 운영은 누가하나

불교수목원 설립의 주체는 현실적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이 가장 적당하다. 불교계 재원이란, 재무구조가 탄실한 조계종 대형사찰과 천태종 등 각 종단이 투자 형식으로 협연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불교법인체나 1000만 불자들의 성금이 보태지면 더욱 좋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수목원의 사업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지만, 불교는 비교적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우선 넓은 사찰림이 전국에 산재해 있어 수목원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기존의 사찰림에다 조성하기 때문에 식물 식재비용을 다른 수목원에 비해 많이 줄일 수 있다. 또, 조성 후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를 비롯해 묘목 판매, 기술과 연구 용역 등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

대규모 다목적 종합수목원을 만들자

불교 수목원은 소규모의 테마수목원이 아니라 1600만㎡(약 50만평) 이상의 '수목원+휴양림' 형태의 다목적 종합수목원이다. 불교수목원 조성은 적지 선정이 중요하다. 아열대식물원과 편백 삼나무 숲 조성

가능한 충청남도도와 전라남도 지역이 무난하다. 그 가운데 연평균 기온이 따뜻하고 해풍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이 좋다.

불교수목원은 다양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생산의 숲'이다. 수목원에 대규모 양묘원과 육종장을 두고 각종 식물들을 재배 생산 분양한다. 전국의 사찰은 물론 일반에 조경수와 조화류를 공급한다. 두 번째는 '관람전시의 숲'이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화본류와 목본류를 식재해 이용객들이 돌아보게 한다. 휴경지에는 1만 불자들이 '내 나무 심기' 운동을 벌이면 따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만인의 숲'을 조성할 수 있다. 셋째로 '불교식물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대형 온실하우스를 지어 부처님이 성도한 보리수를 비롯해 경전에 나오는 다양한 식물들을 재배 전시한다. 넷째로 불교수목원은 '산림박물관'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산림문화 전시 기능을 가진 테마박물관으로, 한국불교가 우리 숲을 지켜온 역사 전시관을 함께 두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지를 유치원, 청소년, 일반시민, 불자들을 대상으로 숲 생태교육을 실시하고 숲해설가 양성교육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용객들을 위한 숲해설도 여기서 담당하고, 강사를 외부에 파견할 수도 있다.

최근 '올레길' '둘레길'과 같은 곳에서의 걷기를 통해 건강과 활력을 찾으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따라서 불교수목원은 휴양림의 기능도 할 수 있다.

넓은 숲을 확보해 질병 치유를 위한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 피톤치드 방출량이 많은 편백 삼나무 중심으로 숲을 조성해 생태주목을 지어 향방 의사를 상주시켜 하루 이를 단기가 아닌 일주일 또는 한 달 이상의 코스를 통해 실질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를 위해 약초원을 두고 약초를 재배하고 약재를 생산·판매한다.

'명상의 숲'과 같은 수행의 숲을 마련해 수행숲을 마련하고 시민선방을 지어 참선과 명상을 원하는 이들이 머물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3개월 무문단 프로그램에서부터 1~3일 단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걷기명상을 위한 명상의 숲길 조성도 필요하다. 여기에 조성된 숲으로 수목장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

불교는 종교라는 특성 외에 수 천년의 문화유산인 보고(寶庫)이다. 필자는 불교의 주체성을 살리고 시대적 역할을 다 하려면 상징적 사업으로 불교수목원이 특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업을 위해서는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종단의 결단력과 사부대중의 의식전환이다.

서울 봉은사에서 영결식 여주 신륵사에서 수목장 봉행

불교 언론·환경·문화 분야에 걸친 시민운동에 한 획을 그은 김재일 대표(사찰생태연구소)의 영결식이 5월 18일 봉은사에서 환경위원회화상으로 봉행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 포교부장 계성 스님 등 총무원 부장단 스님들과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환경위원장 장명 스님,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주경 스님 등 스님들, 유가족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영결식은 고인이 1994년 설립한 생태시민모임 두레의 전기동 회원의 사회로 시작해 두레 류윤희 회원의 고인의 걸어온길 낭독,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의 영결비문, 환경위원장 장명 스님의 추도사, 유정길 예코부터 대표의 조사, 김용광 시인의 조사, 봉은사 합창단의 조가 등이 진행됐다.

이날 영결식에 참석한 불교계 대표

들은 수십년간 불교계에 헌신해 온 고인을 보내는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함께 그 뜻을 잇겠다는 발원을 했다.

환경위원장 장명 스님은 "환경보살로서 20여 년 간의 어려움에도 대원을 실천하심은 바로 진흙 속의 한송이 연꽃과 같았다"며 "불교는 숲의 종교다"는 말씀과 함께 사찰 생태의 이장표를 세운 고인의 뜻을 이어 고인이 기획한 불교수목원 추진의 뜻을 잇겠다"고 말했다.

김재일 대표의 아들 김병주 씨는 "2003년 발병 후 마치 스스로를 녹여 불을 밝히는 촛불과 같이 가족들의 만류에도 더욱 열심히 일하셨다"며 "울지 말라. 울지 마라. 나 잘 살다가 간다. 모두 모두 사랑한다"는 김 대표의 유언을 소개했다. 이어 운구는 화장한 뒤 여주 신륵사로 옮겨져 뒷산 한고루 나무 아래서 수목장으로 봉행됐다.

노덕현 기자



싱그러운 생명으로 오소서 추모사



당신을 아는 불교인 뿐 아니라 불교시민운동을 하는 모두에게, 항상 믿음직한 형님이요, 스승이요, 도반이셨습니다.

1985년 당시 불교는 종권투쟁으로 혼란스러워 누구하나 교권이 당하는 피해를 돌아볼 겨를이 없던 시절이었고 종교를 편향, 불교예곡 등 방송과 언론의 기조에 대해 불교 내 누구하나 관심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도반들과 더불어 봉고차를 끌고 다니며 지방의 방송사를 찾아 항의하는 활동을 해서 결국 13년간 편향된 방송을 폐기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챙길 줄도 모르고, 개인의 이익을 챙길 줄도 모르고 자기에게 오는 것들은 모두 털어 사회를 위해 불교를 위해 헌신해온 분입니다.

김재일 선생님은 문화유산답사가 유행이 되기 훨씬 전부터 그리고 훨씬 이 후까지 총 20여 년간 600여 차례에 걸쳐 우리 문화를 시민들에게 알리며 사랑하도록 '두레문화기행' 단체를 만들어 우리나라의 실제 답사문화 붐을 가장 오래 그리고 폭넓게 해오신 분입니다.

또한 '사찰생태연구소'를 만들어 앞으로 8년간 투병하는 가운데 7년여에 걸쳐 108개 사찰의 생태 모니터링을 마치고 '산사의 숲' 시리즈 10권의 책을 기어코 완간 해놓으셨습니다.

'불교사찰의제 21'을 만들어 전국 사찰이 생태적으로 구조조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신 분입니다. 이제껏 그가 해온 일은 사회적 균형을 맞추려는 일이었지 불교만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자로서의 아름다운 삶, 시민운동가로서의 모범적 삶, 이제 그 삶을 우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애에는 많은 중생들이 생명의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나무로 숲으로 물로, 바람으로 더욱 싱그럽고 풍성한 생명으로 다시 오소서.

유정길 (예코부터 공동대표)

2011년 '적하수오'

묘목 분양 성황리 종료

스님 및 불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2011년 적하수오 묘목분양이 마감되었습니다.

더 공급하여 드리려해도 2011년 준비하였던 묘목이 모두 분양되어 부득이하게 공급해 드리지 못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 더욱 많은 적하수오 묘목을 준비하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하수오 묘목 분양에 열렬한 성원을 해주신 스님 및 불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적하수오

문의 : 010-8442-4444(상담) / 010-3534-8366(농장)
묘목 재배 농장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176번지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다영보이

순수 자연 야생보이차

- 중국 운남성과 경관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엽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품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쪄서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50g, 100g, 330g

신차 25,000원 / 38,000원 신차 70,000원 / 65,000원 병차 165,000원 (500개 한정수량) / 99,000원

• 판매원 : 마 하 물 021732-1520
• 제조원 : 다 영 보 이 021959-887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퍼스텔 1507호

www.dayoungtea.co.kr / www.다영보이.kr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 느린 등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압박성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실법

동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져나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세계적 여성 명상 지도자 『디빵따라 세알레이』와 10일 명상 체험

- 1964년 미얀마 출생.
- 어린 시절부터 수행에 전념하여 여러 큰 스님 들로부터 명상지도자를 받음.
- 대학 시절 파아옥 사야도게 가르침을 받아 수행을 이룸.
- 1990년부터 호출란, 자비관, 부정관, 4대 요소관 위빠싸나 등을 수행 지도함.
- 미국, 캐나다, 타이완, 영국, 홍콩 등 해외에서 외국인 위한 수행지도 중.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 그대로 짜마타(선정)와 위빠싸나(통찰) 수행을 단계별로 지도합니다.

수행의 시작부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시스템 개인 면담 지도를 받으며 수행할 수 있는 매우 귀하고 의미 있는 기회입니다.

초심자는 명상의 주된 주제에 아나빠나사며(호출란)나, 사대(지, 수, 화, 풍대) 요소관이 주어집니다. 그 후 집중과 지혜의 개발에 따라 개별적인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 일 시 : 2011년 6월 30일 ~ 2011년 7월 9일 (9박 10일)
● 장 소 : 남양주시 봉인사 031)574-5585 www.bonginsa.net
● 동참금 : 18만원 (1박 : 2만원) 스님 9만원 스님들의 참가비는 후원금으로 충당됩니다. 많이 오셔서 정진하십시오. 입금 계좌 - 농협 355-0000-5973-03 (예규부 봉인사)
● 준비물 : 개인세면 도구